

뉴욕일보

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AUGUST 13, 2009

한국문화 소개 뉴스레터 발간

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

한국의 오래된 예술과 미술품 소개를 통해 한국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는 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관장 로버트 킬리)가 첫 뉴스레터를 발행해 주목 받고 있다.

57페이지로 구성된 '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 뉴스레터'는 한국의 예술과 미술품을 영어로 소개하는 뉴스레터로는 미국 내에서 처음이다.

이번 데뷔 호는 한국의 서면 아트(Shaman Art)를 주요 내용으로 관련 계통 전문가들의 글과 사진 등으로 꾸며져 있다.

특히 서울 가회 박물관이 소장한 한국 서면 페인팅 컬렉션이 소개된다. 가회 박물관은 한국 내에서도 유명한 서면 아트와 포크아트 컬렉션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국의 산신과 산 제사 전통을 주요내용으로 다룬 '홀림(1999)'의 저자 데이빗 메이슨이 한국의 서면 문화에 대해 연구한 내용이 소개된다. 이밖에도 퍼시픽 림 아트 디렉터인 로렌 더스취 씨가 한국 서면 예술품을 소장하면서 겪는 에피소드와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서면 아트 컬렉션을 전시하고 있는 테레사 김 씨의 작품도 소개된다.

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의 로버트 킬리 관장은 "이 뉴스레터는 코



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가 발행한 첫 뉴스레터의 커버 페이지.

리안 아트 소사이어티 창립 이래 가장 중요한 성취 중의 하나"라면서 "이 뉴스레터가 한국 예술과 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뉴스레터 발행 후 세계 각지의 한국학 학자들과 큐레이터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에는 1,100여명의 회원이 전 세계에 가입된 상태다. 이번 뉴스레터는 코리안 아트 소사이어티 홈페이지(Koreanartsociety.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류수현 기자>